

예수, '나귀 타고 입성' 메시아로서 완벽한 표적



●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1절)

벳바게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으로 올리브 산(감람산) 너머 산등성이에 형성된 동네였다. 이 동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파게, 즉 '무화과의 첫 열매' 동네였다. 아무래도 무화과가 많이 있었던 듯하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사람들은 반드시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벳바게는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본문은 예수께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연출되는 시작점이다.

예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을 어귀에서 계셨다. 대신 제자 둘을 마을로 들여보내며 말씀하시길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만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현재 스가랴 9장9절 말씀에 근거하여 메시아의 입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슌 9:9)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마쉬아흐)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한다. 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어느 지역을 지칭하느냐는 나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메시아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만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메시아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부터 나귀를 탄다고 했소. 예루살렘은 벳바게(베이트 파게)에서부터 시작되는 데 당신은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만 나귀를 탔소? 그러므로 당신은 메시아의 표적을 이룬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메시아의 표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지점인 벳바게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메시아로서 완벽한 표적을 보여 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께서 벳바게에서부터 나귀를 타시는 행위는 스가랴에 예언된 메시아의 입성을 완벽히 이루시는 것이다.



● ‘매인 나귀와 나귀새끼’(2절)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그분이 순종과 겸손의 모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헬라어에서는 폴로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나귀새끼, 또는 망아지라고도 볼 수 있어서 단순히 ‘탈것’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아톤과 아이르라는 단어를 써서 ‘암나귀와 나귀 새끼’를 의미한다.

즉 제자들이 벳바게라는 동네에 들어가면 암나귀(아톤)가 묶여 있는데 그 옆에 수컷 나귀새끼(아이르)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그 어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면 자연스럽게 나귀새끼도 함께 올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나귀와 나귀새끼를 특정하여 지칭함으로 단순히 탈것으로만 아니라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는 과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나귀는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 왜냐하면 나귀는 그 성질상 자기 주인이 정해 준 구유에서만 먹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나귀는 자기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짐승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나귀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성경구절은 이사야 1장3절이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사 1:3)

예루살렘에 왕이 임하실 때 순종과 겸손의 이미지를 가진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그 왕이 곧 순종과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왕이 순종과 겸손의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는 히브리인들의 생각의 근원은 바벨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대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쟁에 패배하여 바벨론에 끌려온 사실을 생각할 때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만약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자기들 위에 세워지는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는 왕이 세워져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그래야 자신들이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한 모습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왕은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스가랴서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슥 9:9)

결국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에 나귀를 타신 왕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순종을 가지신 왕이며, 그 겸손과 순종을 백성들이 배워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한 백성으로 자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3절)

예수의 시대에 유월절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가장 고조되던 때였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얻은 시기였기 때문에 유대 전통에서도 메시아가 오신다면 유월절 기간에 오실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온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상황과 메시아의 입성의 표적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는 단어와 함께 나귀를 징발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그것은 곧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는 의미이고, 그 메시아의 시대를 위하여 자신의 나귀가 징발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동참하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고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시 나귀의 주인에게는 대단한 즐거움과 기쁨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BOB아카데미 대표>